

맹물 가정의 기적

증암교회 윤종호집사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가진 것 없는 집안의 아들로, 더구나 우상만을 섬기던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서 홀로 주님을 섬기던 중에 당신을 만났으니, 우리의 만남은 한편 외롭고 쓸쓸한 연합이었소. 다만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앞날을 다짐한 일 외에 우리를 응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이었소. 그러한 나를 믿고 나를 남편으로 선택한 당신의 사랑이 신기할 뿐이었소. 우리들의 데이트는 늘 새벽예배를 마친 뒤에 아침 해를 맞이하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뜻을 맞추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우리 수중에는 단 돈 백만원 뿐. 서로 옷 반벌씩 해 입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출발하지 않았소. 당신이 가장 힘들어 했던 일은 시부모님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과, 한없이 미신에 빠져 우리 내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않는 일이었소.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단칸방을 면치 못하고 이사를 밥먹듯 해야 하는 고생이 계속 이어졌소. 어느 때였던가 새로 이사를 간 사글세 방에서 우리는 연탄개스에 중독이 되어 돌이 다 생명을 잃을뻔 한 일까지 있었지요. 끼니거리가 없어서 밥을 굶을 때 교회의 구역식구가 눈치를 채고 구제(救濟)쌀을 슬몓이 가져다 주어 밥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없이 눈물에 그 밥을 말아서 먹은 일이 있었소.

그러면서도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며 혹여 남편인 내가 낙심할 세라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 아내였소. "여보 낙심하지 말아요. 지금은 견디기 힘이 들겠지만 이런 고생이 훗날 우리에게 재산이 될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은 임신을 하고도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했고 고생고생 끝에 출산을 했지만 이 주변머리 없는 남편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허덕거리야 했었소. 막막한 중에 그저 무슨 방도를 주십사고 기도할 뿐이었는데, 뜻밖에 어느 집 사남께서 돈을 들고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던가요. 당신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놀라고 놀라지 않았던가요. "여보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느라고 이런 과정을 주셨을 거예요" 당신은 눈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소.

그렇게 태어난 우리 딸 사라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소. 우리는 우리의 딸이 열국(列國)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사고 사라라 이름을 지었고, 그 딸이 장성하여 주님의 일만을 하도록 기도하면서 세상의 속된 일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살고 있소.

피가 날만큼 어려웠던 지난 날, 그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 내외는 눈물로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렇게 아로새겨진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소. 당신은 그 흔한 가락지 하나, 옷 한벌 변변한 것을 입어 본 일 없이, 오직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만을 연구하는 사람. 샅바느질로 몸살을 앓면서도 빠스 정거장에서, 터미널에서, 혹은 길가에서 전도지를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광고난으로 계속)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3권 1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4월 29일
☎269-8677/021-292-1639. ☒10 Burleigh St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대답해주세요

과연 저는 누구입니까?

Q: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의 사무원이고 개척교회의 집사입니다. 저는 보잘 것 없는 여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하는 것을 배웅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인 설거지에. 청소, 그리고 십팔평짜리 아파트를 뱅뱅 도는 일이 고작입니다. 과연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인가 하는 의문이 스물스물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무어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무섭증이 일다가 요즘은 아주 우울해져서 달팽이처럼 쪼그리고 앉아있기 일쑤입니다. 도와주세요.

A: 자매님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는 여자라면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함정입니다. 권태기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이제 머리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행히 남편이 교회를 다니신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매님도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갈 것이 아닙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사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매님을 스스로 가꾸셔야합니다. 그냥 내팽개쳐두지 마시고 돌보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장을 보는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매님은 18평 아파트를 가꾸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모퉁이를 돌보는 여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남편과 두 아들의 음식을 맡은 주방장이요, 의료 선교사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지쳐 들어오면 오아시스를 만드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매님이 쓰러진다면 이런 천국을 닮은 가정은 깨어지고 맙니다. 자매님의 역할은 천국을 닮은 가정을 가꾸는 정원사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처한 귀한 자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충성하는 여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방황했고 의심했던 일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힘이 솟아날 것이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자매님 자신을 돌보기 위해 다음 것들을 권합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7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2(시 32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18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최윤희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레위기 11:45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거룩해야합니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29장 (마지막절은입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4,5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4/29	최윤희	한 건	박일영, 임혜자	김영길, 신경화	박일영, 임혜자
5/ 6	지찬영	최재학	김종건, 지찬영	박영태, 정의령	최윤희, 송정섭
13	최재학	최윤희	박영태, 정의령	변지웅, 신선숙	최재학, 노은숙
20	한 건	지찬영	박용태, 박정자	윤희나, 손정훈	김종건, 지찬영
27	한은영	조순정	변지웅, 신선숙	이경석, 한은영	박영태, 정의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	--------------	--------------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예레미야(1): 1명. 예레미야(2):1명
- 성숙자반 성경공부
*금요일(2일), 저녁 7:30 *장소: 최재학 집사 자택
- 유아세례 혹은 세례, 입교 대상자, 원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세례식: 5월 6일(어린이주일)
- 교우소식
*등록: 손승일, 윤희나 집사, 정훈, 정경
3/221 Lincoln Rd. Henderson. ☎836-7843
- Tea Time: 3주간 Hall을 사용할 수 없어 예배 후 Tea Time을 갖지않습니다
- 교회청소: 주일 준비를 위한 교회내부청소를 본교회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합심령부흥회: 5월14일(월)-16일(수)
*강사: 음동성 목사(서울 동교동 교회) *시간: 저녁 7:30
*장소: 14일(월) 갈보리교회 / 15일(화) 임마누엘교회 / 16일(수) 주님의교회
- 5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6일	어린이주일 세례식	세례문답(5일 저녁 6시)
13일	어버이주일	
27일	이삭줍기봉헌	

(나의 삶, 나의 하나님에서 계속)
당신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나는 부황기로 당신 어깨며 등을 치료하고 더러는 목 근처에서 피를 뽑아 어깨며 머리의 통증을 치료 하지만 당신은 괴로워하는 일없이 늘 하는 말이 있었소. "언제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불려가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말 텐데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에 잘 쓰다가 떠나야 멋진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여자들이 다 하는 화장도 화장품 값을 아껴 맨 얼굴로 다니는 사람이지요.
아이! 생각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하루하루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헌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살고 있으니.....